

순천 '도심 해방로드 주말의 광장' 피날레

20일 신대천 일원서 겨울밤 도심 속 문화광장 축제
올해 마지막 행사..가족 중심 콘텐츠·공연 등 다채

순천시가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대표 생활문화 축제가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20일 신대천과 인근 공영 주차장 일원에서 '도심 해방로드, 주말의 광장(젊은이들의 해방구)' 피날레 행사를 개최한다.

'주말의 광장'은 일상 속 도심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차 없는 거리에서 문화·예술·휴식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동시에 지역 상권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된 순천시 대표 생활문화 축제다.

이번 행사는 올해 네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열리

는 '주말의 광장'으로, '신대천 열림식'과 연계한 신대지구 최초의 대규모 거리형 축제로 마련됐다.

'신대천 열림식'은 그동안 단절돼 있던 물길을 다시 열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의미를 담아 마련된 행사다.

특히 이번 열림식에서는 신대천이 단순한 하천을 넘어 시민이 걷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선보인다.

또 주말의 광장 상장인 '잔디로드'는 이번 피날

레에서도 신대천 공영주차장 앞 거리에 조성된다.

평범한 거리를 초록빛 쉼터로 탈바꿈해, 차 없는 거리에서 여유롭고 안전한 보행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의 가치를 전달한다.

신대지구 특성을 반영한 가족 중심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캐리커처, 군밤 만들기 체험, 콘텐츠 마켓, 오락실 느낌의 콘텐츠 놀이터, 그리고 풍성한 먹거리 부스로 꾸며진다.

특히 순천시 캐릭터인 '루미동이'와 인기 캐릭터 '밸리곰'의 대형 조형물과 함께 연발 분위기를 더 할 수 있도록 신대천을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연출해 따뜻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조성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신대천 공영주차장 폐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시 흥보대사 나영의 무대를 시작으로, 인기 밴드

루시와 테이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이밖에도 순천 버스킹 경연대회 우승자의 특별 무대, 국가대표 비보잉 크루 '퓨전엠씨'의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버블, 마술 등 거리공연과 DJ의 앤딩쇼까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들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축제가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도심에서 문화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신대천 일대가 단순한 하천 공간을 넘어 문화와 여가, 휴식이 공존하는 도심 속 문화광장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백칠석 기자 2556@kbs.co.kr

장흥 빠삐용Zip '지역 문화공간' 변모

20~21일 독립영화·무성영화 등 다양



고흥, 올해 고흥사랑상품권 역대 최대 실적

전통시장·식당 등서 780억 돌파
자금 유출 방지..지역경제 '온기'

고흥군의 지역 소비 촉진 전략이 지역화폐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고흥사랑상품권 판매액이 지난 15일 기준 78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이번 성과는 상시 할인 운영과 명절·관광 성수기를 겨냥한 특별 할인 등 지속적인 할인정책과 지역 소비 촉진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흥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식당, 카페, 미용실, 마트 등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70여개 가맹점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시 10% 할인 운영과 함께 설 명절·휴가철인 8월부터 연말까지 15% 특별 할인판매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펼친 결과

주민과 관광객의 높은 참여 속에 역대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군은 '찾아가는 모바일 정보보드(QR코드) 결제 서비스'로 가맹점 정보보드(QR코드) 보급을 확대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그 결과 모바일 상품권 이용률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군민과 지역 상

공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가 만들어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상품권 특별할인 추진, 결제 편의 강화, 홍보 마케팅 등 다각적인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내년 1월부터 명절맞이 고흥사랑 상품권 특별할인을 추진하는 등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여수 산사태 취약지 사방시설 조성
재해 예방 사업지 4곳 공사 완료

여수시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추진해 온 사방사업 대상지 4곳에 대한 조성을 마쳤다.

이번 사업에는 사방댐 1곳, 계류보전 1곳, 급경사지 안정화를 위한 산지시방 2곳이 포함됐으며, 집중호우로 토사 유출과 붕괴 위험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됐다.

신설된 사방댐은 상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석류를 차단해 하류 주거지역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계류보전은 계곡부의 물 흐름을 안정시키고 침식을 완화해 강우 시 유로 붕괴를 방지하도록 설계됐다.

또 산지사방은 비단면 보강과 식생 복구를 병행해 해마다 안정성을 높여 장마철 반복되는 침식과 붕괴 위험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 완료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의 구조적 안전 여건을 보완하고 향후 장마·호우 시기에도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2026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추가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조성을 위한 사전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방댐 확충, 노후 시설보수, 지반 계측 기반 모니터링 등 산림 재해 예방사업을 지속 확대해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

광양,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인프라 구축 박차

4개 협약 기업 양산 준비 점검
'스케일업실증센터' 국비 확보

광양시가 이차전지 스타트업 협약 기업을 찾아 스타트업 성장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실증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스타트업 스케일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한 4개 기업을 방문해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확장 계획을 공유했다.

광양만권은 이차전지·철강·첨단소재 분야의

영커기업이 집적된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스

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 겹증과 양

산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기술력은 있지만 양산 단계 진입에 어려

움을 겪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해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스케일업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열린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 지원사업 킷오프' 행사에서 (주)에이비알과

(주)네이트로닉스, 그린미네랄(주), (주)에버인더스

등 4개 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향후 양산 단계로

전환될 경우 광양에 공장을 설립하고, 지역 인



정인화 광양시장 등 광양시 관계자들은 최근 스타트업 스케일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한 4개 기업을 방문해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확장 계획을 공유했다.

재 채용과 지역 기업 활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광양시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들은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

센터와 의신산단 일원의 이차전지 스타트업 스

케일업 실증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시는 각 기업이 배터리 재제조, 양극재 직접

재생, 폐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인 리튬을 친환경

방식으로 회수하는 기술, 차세대 나트륨 이온전

지 소재 개발 등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파

일련 설비를 운영하며 양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스케일업 실증 지원사업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양산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현실적인 장점다리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는 보다 체계적인 스케일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스케일업 성장 단계에 맞춘 체

계적인 실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파일럿 설비 설계부

터 구축·최적화, 기술 실증, 투자 유치까지 스케

일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실증센터'

유치를 추진. 내년도 스케일업 실증센터 기

본·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농식품 바우처로 취약계층 영양보충
곡성, 22일 시작..내년까지 연중 운영

곡성군은 오는 22일부터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일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이 지정 8가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바우처 금액은 매월 1인 가구 4만원, 2인 가구 6만5000원, 3인 가구 8만3000원, 4인 가구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자 범위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 확대되고 지원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운영된다.

2025년 기준 이용자는 지원 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되지만 신규 대상자는 기주 지급·면사무소,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51-0857)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매월 정액으로 자동 충전되며 당월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액은 이월 소멸된다. 다만 10% 미만 잔액에 한해서는 이월 가능하다.

사용처는 지역 내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편의점, 농협몰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향후 곡성군은 거동 불편자 등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월별 꾸러미 상품을 개발하고 배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농식품 접근성을 강화해 영양 보충을 지원하고 면거리 복지 실현과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면거리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